

## 산림부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유엔산림포럼을 중심으로

최은호<sup>ID\*</sup> · 김래현 · 김명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Trends and Implication of International Discussion on Forest Sector: Focusing on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Eunho Choi<sup>ID\*</sup>, Raehyun Kim and Myungkil Kim

Global Forestry of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ul 02455, Korea

**요약:**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은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 2030년까지 산림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UNFF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UNFF에서 수립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부문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UNFF의 장기전략(UNSPF)과 글로벌산림목표(Global Forest Goals, GFGs)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부문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문, 기관,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실제 임업 현장에서도 산림부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고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책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UNSPF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UNFF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보고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목표의 국가보고 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appearance of global issue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 has shown a significant progress in such as emphasizing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forest sector and establishing long-term strategies. In relation to the SDGs which would be discussed mainly in differe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ferences related to forest sector until 2030, this study reviewed the discussion trend by establishing integrated databases and focusing on UNFF which serves as an integrated coordinator. It also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of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 established by UNFF. Furthermore, the following proposals on polici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aiming for active discussion on forest sector not only in international but also in national context, and to implement UNSPF and GFGs effectively in a long-term manner: (1) Cooperation among sectors,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o make an active discussion on forest sector; (2)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forests should be encouraged in actual field, and it should serve as the basis when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goals; (3) By fully utilizing UNFF report which is for the review of UNSPF implementation, a rational reporting system should be provided, and simultaneously, the efficiency on reporting item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Cooperation, UN Forum on Forests (UNFF),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 Global Forest Goals (GFGs)

## 서론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hchoi710@korea.kr

ORCID

Eunho Choi <sup>ID</sup> https://orcid.org/0000-0002-7672-545X

지난 2017년 2월에 개최된 제12차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 특별세션에서 2017-2030 유엔산림전략계획(The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

UNSPF)의 채택을 상정하였고 같은 해 4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가 이를 채택하였다. UNSP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였다.

수많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UNFF의 역할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포럼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11차 포럼을 전환점으로 SDGs라는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산림부문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2030년까지 산림부문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주축이 될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UNFF에 주목하여 그간 논의한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지구적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해 UNFF에서 수립한 UNSPF의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산림부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DGs, 국제 산림 관련 협약, 프로세스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엔산림포럼의 논의 동향

### 1. 유엔산림포럼 설립 배경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는 1972년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UNCHE)에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환경 문제가 인류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이슈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개최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27개 행동기본원칙으로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산림의 보전 및 경영 관련 최초 합의인 ‘산림원칙 성명’이 채택되었다.

리우 UNCED에서는 ‘의제21’의 40개 전 분야의 이행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O)를 발족하였으며, 산림황폐화 방지 등 산림관련 주요 의제만을 별도로 집중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 체계 하에 정부간산림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IPF; 1995~1997)과 정부간산림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 IFF; 1997~2000)을 운용하였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촉진을 위한 300여개의 행동제안(Proposals for Action)을 만드는 데 그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산림협약(legally binding instrument, LBI)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산림협정(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 IAF)에 의거하여 UNFF를 설립하였다. UNFF의 주요 기능은 UN 회원국 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IAF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는 데 있다. IAF는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산림협정 이행 및 전 지구적 산림목표(Global Objectives on Forests, GOFs) 달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UNFF 결의안에 따라 IAF 운영 10년차인 2015년도에 IAF의 효과성 평가가 계획되었다.

1992년 유엔경제이사회 하부기관으로 UNCSO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전 세계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가 유엔 체계 내에 설치되었다는 것 자체로 UNFF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UNFF 역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정이나 협약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존의 IPF나 IFF처럼 국제논의가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회의적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 종료되면서 UNFF 또한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Figure 2. (1)International).

### 2. 제11차 유엔산림포럼 및 후속조치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 종료되면서 MDGs의 핵심원칙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계 환경변화와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Post-2015 개발의제를 명칭하는 SDGs가 채택 되었다. SDGs 체계 하에서는 지구환경(Planet)이 5가지 필수요소<sup>1)</sup> 중 하나로 설정되었으며, 목표 중 SDG 15번(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

1)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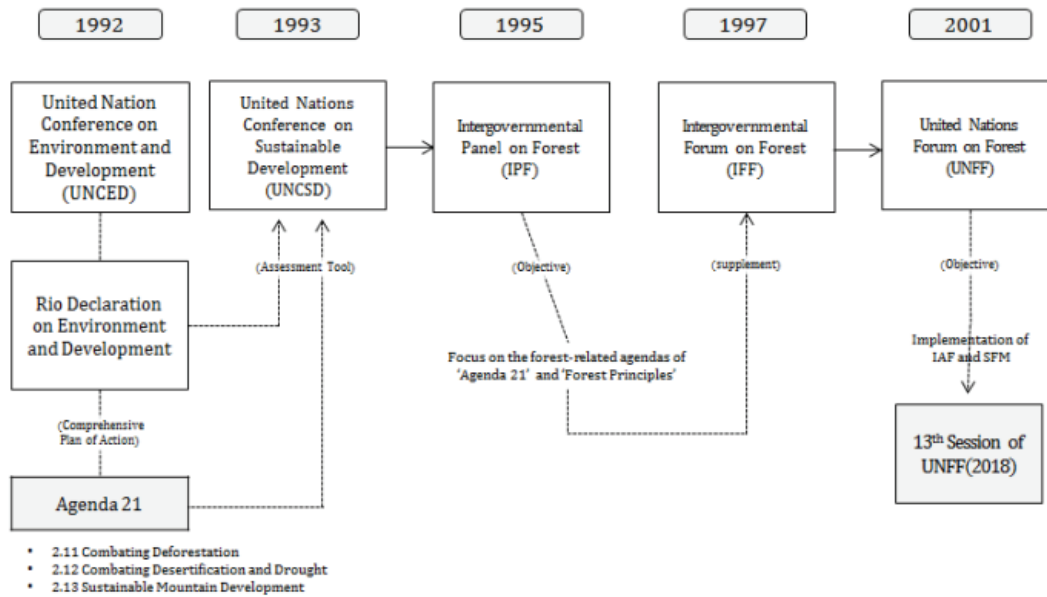


Figure 1. Establishment process o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의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11차 UNFF 역시 Post-2015 개발 의제에 맞춰 GOFs의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이행 촉진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2000년 1차 포럼이 시작된 이래 산림부문의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11차 UNFF를 전환점으로 SDGs 달성이라는 전 지구적 이슈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11차 UNFF 이후 2016년 3월 도쿄 기술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뉴욕 작업그룹회의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특히 세 차례의 전체 회원국 회의(2)를 거쳐 장기 프레임워크인 2017-2030 UNSPF와 4개년 작업계획(Quadrennial Program of Work for 2017-2020, 4PoW)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13차 포럼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13차 포럼에서는 UNSPF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발적 국가보고서 제출 일정을 확정하여 회원국들은 2019년 첫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3)은 SDG 6, 7, 11,

12, 15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산림 부문과 가장 관련이 높은 SDG 15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HLPF에 제출할 SDG 15와 그 외 산림부문과 관련 있는 목표들의 달성 가속화를 위한 행동제안서를 작성하였다.

### 3. 유엔산림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및 글로벌산림목표

UNSPF의 전체적인 구성(4)은 첫 번째 서문부분에서 미션과 비전, 2030의제와 산림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글로벌산림목표(Global Forest Goals, GFGs)와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이행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 활동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각 이행 담당자들의 역할, 책임, 이행수단 및 자원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검토 프레임워크에서는 제12차 UNFF의 결정에 따라 SDGs에 근거하여 IAF의 효과성에 관한 중간평가를 2024년에 실시하고 2030년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UNSPF의 이행 추진사항을 점검하되 각국의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2) 11차 UNFF의 실행사항으로 2016년 두 차례의 전문가 그룹 특별회의(Meeting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ad hoc expert group)와 작업그룹(Working Group) 회의가 진행됨.

3) HLPF는 UNCSD를 대체하여 SDGs와 그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UN 주도의 플랫폼으로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 주제로 4년마다 국가정상들을 소집하는 회의를 열

고, 경제이사회(ECOSOC) 주제로 매년 각국 장관을 소집한 회의를 개최함. 1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논의할 SDG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보고서를 점검함. 2018년에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주제로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됨.

4)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 참고: UN. 2017. Resolution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20 April 2017 (E/RES/2017/4).

**Table 1. Main discussions o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from its 1<sup>st</sup> to 10<sup>th</sup> session.**

Sessions	Main Discussion of Each Session
1 <sup>st</sup> session of UNFF	- Adoption of decisions on the UNFF Multi-Year Program of Work, a Plan of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PF/IFF Proposals for Action, and the UNFF's work with the CPF - Establishment of technical advice for UNFF by expert groups: (1) approaches and mechanisms for monitoring, assessment and reporting (2) finance and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3) parameters of a mandate for developing a legal framework on all types of forests
2 <sup>nd</sup> session of UNFF	- Adoption of 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Message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and eight decisions on: (1) combating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2) forest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unique types of forests and fragile ecosystems (3) rehabilitation and conservation strategies for countries with low forest cover (4) 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of degraded lands and the promotion of natural and planted forests (5) concepts, terminology and definitions (6) specific criteria for the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 (IAF) (7) proposed revisions to the medium-term plan for 2002-2005 (8) other matters
3 <sup>rd</sup> session of UNFF	- Adoption of six resolutions on: (1) enhanced cooperation and policy and program coordination (2) forest health and productivity (3) economic aspects of forests (4) maintaining forest cover to meet present and future needs (5) the UNFF Trust Fund (6) strengthening the Secretariat
4 <sup>th</sup> session of UNFF	- Adoption of five resolutions on: (1) forest-related scientific knowledge (2)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forests (3) monitoring, assessment and reporting and criteria and indicators (4)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AF; and finance and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5 <sup>th</sup> session of UNFF	- Agreed to four global goals (provisional) on: (1)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area of protected forests and sustainably managed forests worldwide (2) Reversing the decline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SFM (3) Reversing the loss of forest cover (4) Enhancing forest-bas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6 <sup>th</sup> session of UNFF	- Finalized the four global objectives on forests for the IAF to: (1) Reverse the loss of forest cover worldwide through SFM through protection, restorati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2) Enhance forest-bas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the contribution of forests to the achievement of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3) Increase significantly the area of protected forests worldwide and other areas of sustainably managed forests (4) Reverse the decline in ODA for SFM, and mobilize significantly increased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from all 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FM
7 <sup>th</sup> session of UNFF	- Adoption of the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and a Multi-Year Program of Work for the period 2007-2015
8 <sup>th</sup> session of UNFF	- Adoption of a solution on forests in a changing environment, enhanced cooperation and cross-sectoral policy and program coordination, and regional and sub-regional inputs
9 <sup>th</sup> session of UNFF	- Launching of 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2011 - Adoption of a resolution on forests for people, livelihoods and poverty eradication addressing followings: (1) procedures for assessment of progress; increased region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2) enhanced cooperation with Major Groups (3) MOI for SFM, including expert group process on forest financing
10 <sup>th</sup> session of UNFF	- Deci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IAF would be reviewed in 2015 - Established an expert group to review the IAF's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포함되어 있다. UNSPF 자체가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tool)이며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산림부문 이외의 타 분야와의 협력 및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UNSP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한 전지구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엔 조직 내에서 산림 관련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UNSPF를 채택한 만큼 유엔 산하 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UNSPF 이행에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둘째,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의제 2030)에 대한 산림의 기여 증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협력, 협업,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한다. 셋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산림협정(United Nations Forest Instrument, UNFI) 및 기타 국제 산림관련 협약, 프로세스 및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림과 임업’은 SDG 15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SDG 2), 수자원 관리(SDG 6), 에너지 안보(SDG 7), 일자리 창출(SDG 8), 기후변화 대응(SDG 13) 등 다양한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UNSPF는 유엔 체계 하에서 산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2030 의제라는 국제적 이슈와 국제협약, 목표 간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통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UNSPF의 핵심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GFGs 6개와 하위 26개의 세부목표<sup>5)</sup>이다. GFGs와 세부목표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 대상이며 자발적이다. 또한 IAF 목표를 지원하고 SDGs,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ABTs), UNFCCC에서 채택한 파리협정 및 기타 국제 산림관련 협정, 협약 및 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30 의제의 비전과 원칙을 반영하여 GFG 및 세부목표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전략의 핵심인 GFG는 1.산림피복 손실률 회복, 2. 산림을 통한 경제·사회·환경적 편익과 주민 소득 증진, 3. 산림보호면적 증대, SFM 면적 및 생산 증진, 4. 재원의 확보, 5. 거버넌스 강화, 6.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4. 유엔산림전략계획에 따른 국가보고

UNSPF에 따라 정량·정성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또 다른 보고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제13차 UNFF에서는 국가별 자발적 보고를 위

한 보고주기와 보고서 양식을 확정하였다. 국가별 보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세계산림자원평가(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FRA) 보고주기 5년과 HLPF에서 전지구적 수준으로 진행되는 SDGs 이행상황 연례 보고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보고(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4년 검토 주기를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고 양식<sup>6)</sup>을 살펴보면, GFG 1~3 관련해서는 법, 제도, 재정, 기술에 관해 표준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목표에 대한 진척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지구적·지역적으로 다양한 소스를 통해 얻은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를 최대한 보완하게 될 것이다. GFG 4~6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이나 재원의 동원과 관련되며 국가정책수단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보고서 작성자가 전략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항을 서술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들이 GFG와 해당세부목표의 이행을 위한 과정을 유연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장점으로 판단된다.

회원국이 포럼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국가보고서는 2019년 말 최초로 제출될 예정이며 검토를 통하여 GFGs와 이의 세부목표의 진척사항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시 자발적 국가 기여(Voluntary National Contribution)를 계획하고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정책적 시사점

### 1. 산림부문 관련 국제 협약, 협정 및 목표 간 협업

2017년 11월 유엔 3대 환경협약인 UNFCCC, CBD, UNCCD 사무국은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갖춘 신 프로젝트 준비기관(new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설립을 선언했다. 주된 목표는 필요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CBD의 ABTs, UNCCD의 토지황폐화중립 목표(Land Degradation Neutrality targets), UNFCCC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와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에 기여하여 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6) 보고 양식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 참고: UN. 2018. Note by the Secretariat on monitoring, assessment and reporting on the progress in implementation of the 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 and the UN Forest Instrument (E/CN.18/2018/4).

5) 자세한 목표와 세부목표는 다음 문서 참고: UN. 2017. Resolution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20 April 2017(E/RES/2017/4).

(UN ECOSOC, 2018). 3대 협약 역시 각 의무사항의 이행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국가·지역·전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협업을 통하여 각 협약 이행에 따르는 비용의 최소화과 중복되는 노력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렇듯 국제협약, 협정 및 목표는 산림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를 바탕으로 달성해야 하며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목표, 프로그램 및 조치들 간의 상호보완과 연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SDGs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는 각기 분리된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비정부 조직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칸막이 식’, ‘단기적’ 접근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대응하고 있는 국제 목표에 대하여 그 연계성을 확인하고 담당자들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주목하여 장기적·통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GFGs는 SDGs에 대한 산림의 공헌을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어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목표이다. 무엇보다도 산림이 중심이 되어 전지구적 목표의 달성에 대해 논한다. 국제·지역·국가·기관 간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 및 경영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전지구적 참여를 동반할 것이며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력과 관계 구축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가치와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산림이 제공하는 기능은 SDG 15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UNFCCC, UNCCD, CBD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관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이행 주제, 민간·공공·국내외 재원들이 중복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수준에서의 조정과 이해가 필요하다. UNSPF의 GFGs 설정이 갖는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종합적인 조정기능의 제공이다. 또한 국제 산림관련 협정, 협약 등의 이행에 있어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GFGs 설정 시 반영하였다. 이에 통합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tool)로 GFGs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각 목표간 연계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은 UNFF가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Gs를 필두로 수많은 국제적 약속이 존재한다. GFGs 역시 또 하나의 약속으로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연계성, 시너지효과에 주목한 장기적·통합적 관점이 강조된 이행이 필요하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심점에 UNFF의 UNSPF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2. 국제이슈의 국내 정책 내재화

### 1) SDGs와 국내 정책적 대응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을 채택하였다. 의제 2030은 5P(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로 알려진 다섯 개의 서문과 이에 대한 범지구적 행동을 촉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17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 한다. SDGs는 각각의 목표와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의제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2030년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해 갈 것이다.

2017년 HLPF는 SDGs 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핀 첫 해로 각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였다. 의제 2030을 통해 SDGs가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SDGs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 및 계획에 SDGs를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음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이행 전략 수립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Yoon, 2017). 2016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22개국이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43개국, 2018년 46개국이 제출하였음은 각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목표 이행에 동참하고자 하는지를 반증한다. 2016년 대한민국이 제출한 첫 자발적보고서는 SDGs가 시작된 지 1년 후에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SDGs의 정책적 내재화나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가적 동참에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이하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사회 공동의 정책 목표로 제시된 SDGs를 기본계획에서 포함되,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총 네 번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급년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의 이행 성과를 담은 다섯 번째 지속가능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 2) 국제이슈에 대한 국내 산림부문의 정책적 대응

우리나라의 경우 의제 2030에 의해 SDGs가 논의된 때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이 맞물려 있었다. 제5차 기본계획에 SDGs를 담아가긴 어려웠으나 산림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출범에 따른 산림협력 전략 연구’ 용역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림부문은 SDGs 이행을 위하여 어느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SDGs와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의 산림정책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림목표 87개 중 SDGs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45개(5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Moon et al., 2017). 이 연구는 SDGs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전 세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국내 정책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은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년으로 계획기간을 연장하여 수립하였다. 총 8가지 전략별 추진계획(7)을 설정하였으며 이 중 SDGs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첫 번째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와 일곱 번째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이다. SDGs의 국내이행 측면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산림역할 강화를 위하여 SDGs 이행·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빈곤 종식을 위하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is left behind)’는 SDGs의 기본정신을 고려했을 때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 15의 세부목표인 15.a, 15.b<sup>8)</sup> 역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와 공공지출을 주목하고 있다. 산림청 역시 사막화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물다양성 보존 등 SDGs 달성과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ODA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8). 목표 15와 관련하여 국내외 이행을 위해 산림 등 육상생태계 보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생태계 다양성 보존, 개도국의 숲 관리 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SDGs 중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목표 15)뿐만 아니라 복지증진(목표 1), 식수접근성(목표 6), 지속가능에너지(목표 7), 회복력 있는 거주지(목표 11), 기후변화 대응(목표 13) 등을 산림과 직간접 연계된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목표 간 연계성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 갈 것이다.

SDGs 이행을 위하여 각국은 국가 전략 및 계획에 담아가려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수준에 불과한 시점이다. MDGs에서 SDGs로 전환해 가는 시점에서 국내 정책이 어떤 수준에서 전 세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앞으로 SDGs에 기존 정책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SDGs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합당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인식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누구나 SDGs 이행을 통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모두의 참여에 기반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Figure 2. (1)National).

## 3. 합리적 보고 체계 마련

앞서 MDGs, SDGs 등 국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여를 위하여 국내 정책이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전지구적 목표의 설정, 목표 이행, 성과 점검의 과정에 의해 필연적으로 보고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였다(Figure 2. (2)Report).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자발적이긴 하나 각국은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발적국가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산림부문 역시 각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제공해야 할 통계 자료와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가 늘어남에 따라 보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 보고 체계 마련을 위하여 통합 또는 개별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원화된 지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면적과 탄소저장고 등은 FRA, CCD, UNFCCC, GFGs,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국가보고서 등에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이다. 산정방식 등 신뢰성과 일관성이 담보된 국가통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각 보고서의 특화된 영역의 차별성 있는 보고 항목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UNSPF는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논의

- 7) ①산림자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 ②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③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④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⑤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⑥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안전 실현, ⑦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⑧산림정책 기반 구축.
- 8) 15.a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 동원하고 증대, 15.b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관련 재원조달을 위해 모든 수준과 영역에 걸쳐 상당 규모의 재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산림보전 및 재조림과 같은 그러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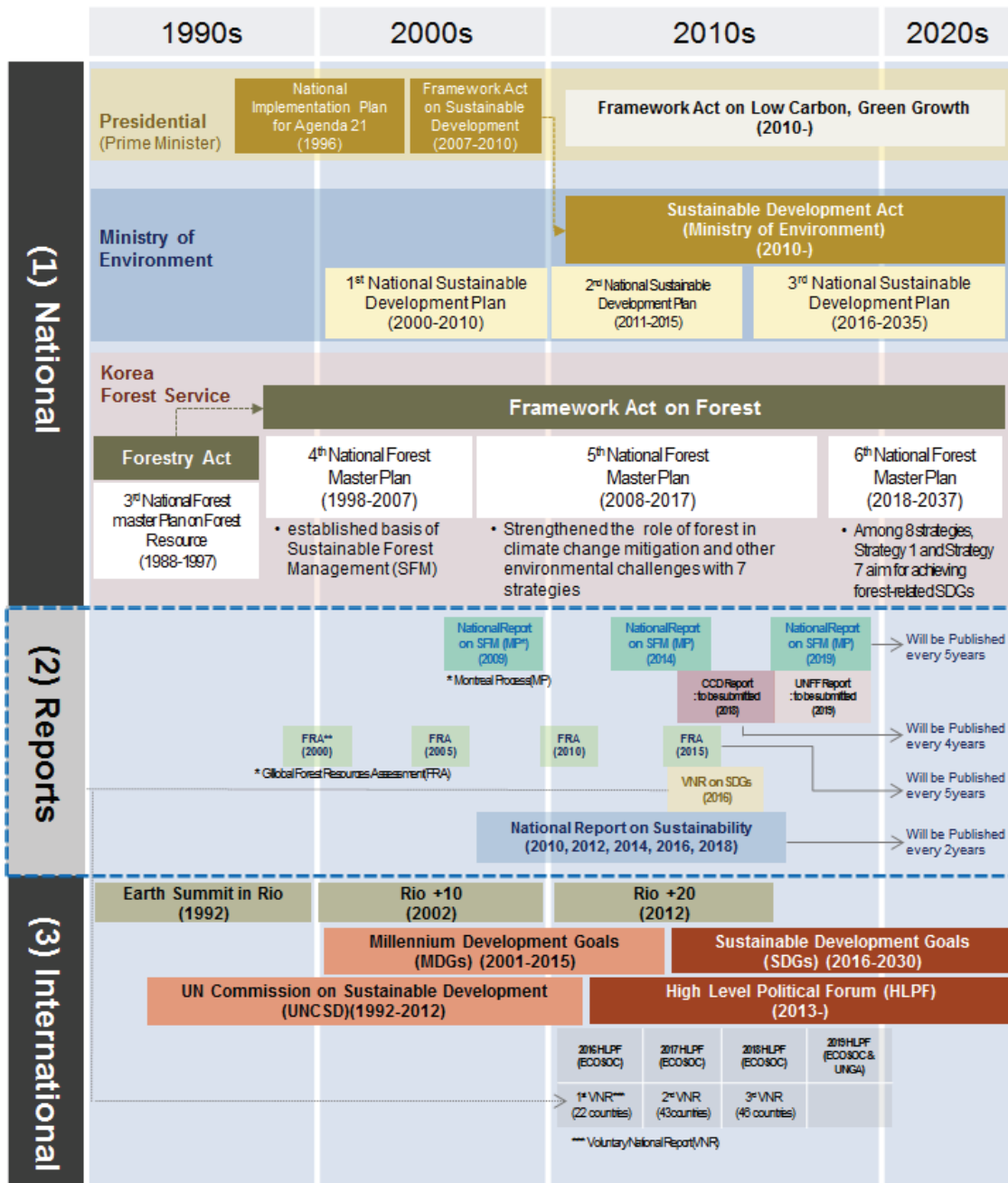


Figure 2. National actions and report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ends in forest sector.

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의제 2030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국제협약 및 목표 간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산림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UNSPF의 핵심인 GFGs는 SDGs 항목에 대한 산림의 공헌을 논의하고 2030년까지의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얼마큼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행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제출할 계획에 있는 UNFF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이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협력의 필

요성을 강조하여 합리적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FGs를 중심으로 여러 목표 간 상호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3<sup>9)</sup>). GFGs를

9) 사용된 GFG, GCS, CBD, CCD, SFM, FRA의 목표 및 보고 기준 및 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점 사이의 거리와 점의 위치가 두 목표간 연계성이 더 크고 적음을 의미하지 않음.

GFG: UN. 2017. Resolution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20 April 2017(E/RES/2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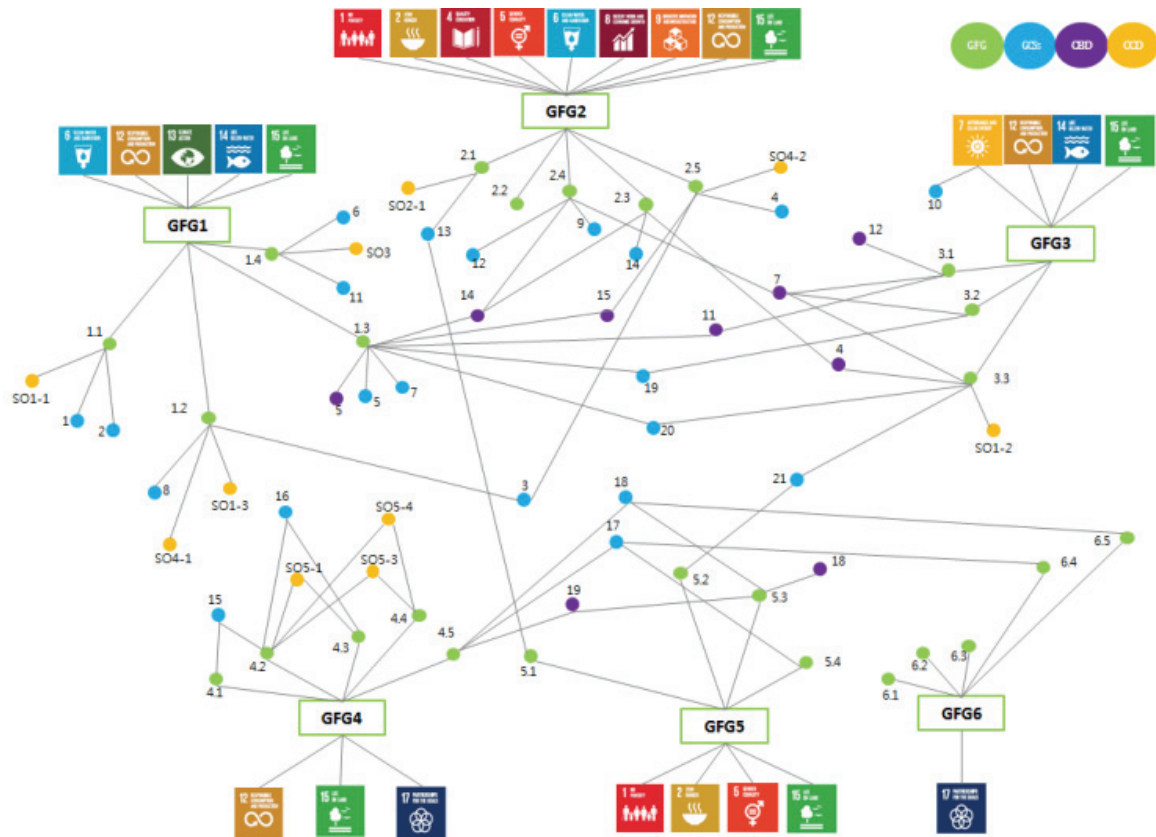


Figure 3. Interrelationship among forest-related goals and targe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greements along Global Forest Goals.

바탕으로 작성될 보고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과제 해결에 있어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산림이 제공하는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GFGs를 중심으로 목표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Figur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목표 간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적인 보고를 줄일 수 있다. GFG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연계성 있는 목표들은 각 보고서 작성 시 UNFF 보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고를 줄여 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UNFF 보고 체계는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량적 지표 이외 정책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보고서 작성 전 과정은 모든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 통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UNFF 보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며 협력,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도·정책적 활동, 재정 활동, 기술·과학적 활동, 파트너십 등을 논의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전 세계는 의제 2030이 강조하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사회 특히 환경과 사람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빈곤·기아, 수자원 관리, 토지 황폐화·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전지구적 문제에 있어 산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논의에 있어 기아와 빈곤과 같은 시급한 현안에 밀려 산림부문은 우

GCS: FAO. 2018.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SDG 15 (COFO/2018/5.1)

CBD: CBD. 2010.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EP/CBD/COP/10/9)

UNCCD: UNCCD. 2018. Reporting manual for the 2017-2018 UNCCD reporting process.

선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수많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UNFF의 역할이다.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 종료되면서 UNFF 또한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의제 2030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국제협약 및 목표 간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산림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의를 더욱 활성화 하고 장기전략(UNSPF)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논의 활성화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산림부문 관련 국제협약, 협정 및 목표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부문을 포함하여 범분야 이슈의 경우 국가이행전략, 프로그램 및 조치들 간의 상호보완과 연계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SDGs, 유엔 3대 환경협약, 산림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GFGs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사회 특히 환경문제는 각기 분리된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 식’, ‘단기적’ 접근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 담당자들 역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에 주목하여 장기적·통합적 관점의 접근을 전제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협약들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KEI, 2010). 산림 관련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도 각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결정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산림청 내에도 ‘산림부문 정보교환 시스템(Clearing House Mechanism for Forest)’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산림부문 국제 목표·협약에 대한 기여전략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UNFF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실제 임업 현장에서도 산림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정책과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SDGs 이행을 위하여 각국은 국가전략 내 재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SDGs에 기존 정책을 끼워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림은 SDGs 중 많은 목표에 기여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산림정책의 전략별 우선순위, 기여가능 정도, 우리나라의 산림부문 원조정책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와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산림면적은 모든 산림정책의

핵심이며 산림부문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이런 측면에서 GFGs 중 유일한 정량목표인 GFG1.1(전 세계적으로 산림면적을 3%까지 증가시킨다)을 우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국내에는 사막화나 토지황폐화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면적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진 등이 더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오래된 숲을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림관리, 경영, 이용 정책을 통해 숲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GFG 1.1 기여에 있어 북한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산림복원 및 보호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문이다. 육상생태계 보전 및 복원은 산림면적 증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작금의 국내 정책과 연계하였을 때, ‘한반도 생태축 복원 파트너십’은 산림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UNSPF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UNFF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각 보고서 작성 시 중복되는 항목의 경우 UNFF 보고 결과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노력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전 과정은 모든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 통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UNFF 보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며 협력,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다.

의제 2030 및 국제협약 이행에 있어 산림부문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바탕으로 한 환경적이고 건강한 방식의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내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수단으로 UNSPF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UNSPF가 산림부문 관계자끼리만 공유되어 산림부문만의 논의로 한계 지어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전지구적 문제들에 기여하기 위한 부문, 기관, 국가들 간의 고민이 담겨져 이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과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 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010.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EP/CBD/COP/10/9).
- Choi, E.H. 2016. Results and suggestions on 1<sup>st</sup> session o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expert group special meeting.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opic on International Forest Policy 35.
- Choi, E.H. 2017. Results and suggestions on follow-up action of 11<sup>th</sup> session o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opic on International Forest Policy 49.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2018.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SDG 15 (COFO/2018/5.1).
-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0.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system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 Korea Forest Service. 2018. 6<sup>th</sup>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8-2037).
- Moon, J.Y. et al. 2017. Analysis on the linkage between SDGs Framework and Forest Policy in Korea.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8(4): 425-442.
-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4. 2014 National Report of Korea o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UN DESA). 2017. Voluntary National Reviews Synthesis Repor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2018. 07. 10).
- United Nations (UN). 2017. Resolution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20 April 2017 (E/RES/2017/4).
- United Nations (UN). 2018. Means of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E/cn.18/2018/5)
- United Nations (UN). 2018. Note by the Secretariat on monitoring, assessment and reporting on the progress in implementation of the 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 and the UN Forest Instrument (E/CN. 18/2018/4).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ECOSOC). 2016. Report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t its 2016 session (E/HLPF/2016/8).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2018. Reporting manual for the 2017-2018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reporting process.
- Yoon, Y. R. 2017. Review on SDGs implementing process of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II. Development and Issues 39.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Manuscript Received : September 19, 2018  
 First Revision : November 24, 2018  
 Accepted : November 30, 2018

## Acronym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Ts: Aichi Biodiversity Targets</li> <li>• 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li> <li>• ECOSOC: Economics and Social Council</li> <li>•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li> <li>• FRA: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li> <li>• GFGs: Global Forest Goals</li> <li>• GOFs: Global Objectives on Forest</li> <li>• 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li> <li>• IAF: International Agreement on Forest</li> <li>• IFF: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li> <li>• IPF: 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li> <li>• LBI: Legally Binding Instrument</li> <li>•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li> <li>•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li> <li>•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li> <li>•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FCC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li> <li>•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li> <li>•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li> <li>•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li> <li>• 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li> <li>• 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li> <li>• UNFI: United Nations Forest Instrument</li> <li>• UNSPF: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li> <li>•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s</li> <li>• 4PoW: Quadrennial Program of Work</li> </ul> |
|---|---|
-